

코로나 상황 속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한 은 진 나 진 경 방 준 호 설 선 혜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대유행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다. 서구권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 방지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제적 함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람들의 외현적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지만 암묵적 태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암묵적 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현적 태도를 자기보고 설문지로, 암묵적 태도를 암묵적 연합 검사(IAT)로 측정하였다. 또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암묵적 태도와 심리적 요인들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다고 지각했으며, 두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마스크가 아닌 방식으로 얼굴의 일부를 가리고 제시한 얼굴은 위협으로 지각하는 암묵적 태도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와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사회적 규범을 일부 내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에 따라서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COVID-19, 암묵적 태도, 외현적 태도, 마스크 착용

* 본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3A2A02097375).

† 교신저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다산관 344호

Tel: 010-8746-7457, E-mail: jinkyung@sogang.ac.kr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가 범유행전염병(팬데믹)이라고 선언하였다.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2021년 9월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억 1900만명을, 누적 사망자수는 450만명을 각각 넘어서고 있다. COVID-19는 비말에 의해 근접 지역으로 쉽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도 전파 가능성이 높다(Lee et al., 2021).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에 대한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였고, 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안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다(Jefferson, 2020).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COVID-19 감염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필수 착용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 세계적으로 권고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에 관한 태도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Howard, 2020; Howard et al., 2021; Taylor & Asmundson, 2021). 예를 들어, 플레시먼 힐러드 TGI("COVID-19 Mindset", 2020)가 한국 포함 7개국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진행된 연구들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에 대한 태도를 자기보고형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러나 자기보고형 설문을 통해 측정된 외현적 태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고려 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암묵적 태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Asmundson & Taylor, 2020). 따라서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외현적 태도에서처럼 암묵적 태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대상을 부정적 혹은 위협적으로 보는 암묵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이전 연구

들에 따르면 특정 물체로 가려진 얼굴은 얼굴 재인(Davies and Flin, 1984; Manley et al., 2019; Mansour et al. 2012)이나 감정의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Bassili, 1979; Fischer et al., 2012; Kret & de Gelder, 2012), 이런 결과는 마스크 착용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정보 처리의 용이성(fluency)은 대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Claypool et al., 2005).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모호한 자극에 대해서는 위협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편도체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결과도 있다(Zaretsky et al., 2010). 즉,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의 안전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스크에 의해 얼굴이 가려진 대상을 무의식적으로는 불안이나 위협과 연관시키는 암묵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외현적 태도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관찰되었다고 해도 암묵적 태도도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다고 지각하는 외현적 태도를 보고한 연구의 결과가 암묵적 태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암묵적 태도는 비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인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Perugini, 2005)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도 측정하여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들 태도에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효과도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COVID-19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

COVID-19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 화됨에 따라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마스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우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낯설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숙한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Winkelman et al., 2003; Zajonc, 1968),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졌다면 이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의 코로나 예방 효과가 충분히 알려져 있다는 것도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염병을 혐오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런 혐오감은 개인의 인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arøe et al., 2016; Schaller & Park, 2011; Shook et al., 2019).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자체를 상기시킨다면 사람들의 태도 역시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모호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확실함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은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얼굴 면적의 약 60~70%를 덮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만들어(Carbon, 2020; Carragher & Hancock, 2020), 사회적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Carragher & Hancock, 2020). 실제로 Marini와 동료들의 최근 연구(2021)에서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의 감정 스펙트럼을 인식하거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사회 인지 과정에서 정보 처리의 용이성(fluency)은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이

정보 처리가 용이한 대상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상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Claypool et al., 2015).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얼굴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을 긍정적으로 느끼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인식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다(Kahane, 2021; Mallinas et al., 2021; Rieger, 2020; Taylor & Asmundson, 2021). 국내 연구에서도 마스크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권주연, 임가영, 김승현, 신현재, & 이주영, 2020). 또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타인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지각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태도를 보였다(Olivera et al., 2020).

종합하면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의 실증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전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여 그것을 외현적 태도와 비교 분석해보려고 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에 관한 태도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응답자의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한 자기보고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측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는 암묵적 태도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우선, 많은 선행 연구들은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Nosek,

2007; Zajonc, 1968). 물론,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둘은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과 변화 가능성,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Fazio et al., 1995; Neumann et al., 2004). 예를 들어, 외현적 태도는 의식적인 선택을 반영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응답자 스스로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비의식적인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는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Greenwald & Banaji, 1995). 특히, 외현적 태도는 사회적 규범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에 대한 압박이 큰 경우에는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Greenwald & Banaji, 1995; 김민영, 박주원, 허수민, & 권지혜, 2020; 홍영오 & 이훈구, 2001). 따라서 코로나의 위협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 착용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스크의 착용에 대해 어떤 암묵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본 연구자들이 아는 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위협과 연관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인간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주는 자극을 위협적이라고 지각하는 무의식적 반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이 특정 물체에 의해 일부가 가려진 얼굴에 대해 재인 혹은 특정 감정을 읽고 인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Bassili, 1979; Davies & Flin, 1984; Fischer et al., 2012; Kret & de Gelder, 2012; Mansour et al. 2012). 많은 연구자들은 얼굴 인식을 위한 총체적 처리(holistic processing), 즉 얼굴을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인식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한다(Maurer et al., 2002; Tanaka & Simonyi, 2016). 일부 연구들이 얼굴 재인에서 눈의 역할을 더 강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은 얼굴 하반부를 가리는 것은 얼굴의 총체적 처리를 어렵게 하고 얼굴 재인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스키마스크(Manley et al., 2019), 나일론 스타킹(Davies and Flin, 1984, Mansour et al., 2012), 또는 반다나(Nguyen & Pezdek, 2017)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진 얼굴들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가려진 얼굴은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얼굴 하반부를 가리는 것은 행복(Bassili, 1979), 슬픔(Fischer et al., 2012)과 같은 특정 감정들을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얼굴은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정체성과 감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것은 모호함과 불확실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보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며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감정적, 생리적 반응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Epstein & Roupelian, 1970; Miller, 1981). 또한, 최근 연구들은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모호한 정보를 주는 자극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Yamada et al., 2012; Yamada et al., 2013).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자극을 위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위협적 대상이나 물체에 대해 반응하는 뇌의 부위인 편도체는 내적 불확실함이 형성되거나(Zaretsky et al., 2010) 잠재적 위협을 내포할 수도 있는 특정 자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Whalen et al., 1998),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마주했을 때(Hsu et al., 2005) 활성화된다. 정리하면, 얼굴의 하반부를 가리는 마스크 착용은 타인의 얼굴 인식과 감정의 해석을 어렵게 하여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대한 인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암묵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안

전하다고 느끼는 긍정적 암묵적 태도가 관찰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암묵적 연합 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를 통해 측정한 암묵적 태도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asgupta, 2013; Gawronski & LeBel, 2008).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암묵적으로도 마스크를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마스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사회 규범을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Olivera et al., 2020). 이처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도 상반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긍정적인 암묵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 암묵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에 대한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심리적 경향성으로 정의되고,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Eagly & Chaiken, 1993). 따라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스크 착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질적 함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arbon (2020)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관련이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심리학 문헌에서 건강 관련

태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식(Howard, 2020), 질병 회피 동기(Neel et al., 2016),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Buhr & Dugas, 2002)을 선택하였다.

우선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 상황 속 마스크 착용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특정 질병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지식수준은 건강 증진 혹은 예방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되었다(Jeong et al., 2009). 또한, 한숙정과 이지혜 (2021)에 따르면 실제 위험한 정도보다는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COVID-19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마스크 착용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심리적 요인으로 질병 피하기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질병을 피하려는 인간의 동기를 연구하는 것은 팬데믹 시기의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Ackerman, Tybur, & Blackwell, 2021; Makhanova & Shepherd, 2020).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질병 회피 동기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에 비해 더 위협적으로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바이러스의 감염은 그 개인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마스크 착용에 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우리의 삶과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특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의 실제 발생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미래의 불확실성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낀다(Birrell et al., 2011; Carleton et al., 2007; Freeston et al., 1994). 따라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스크 착용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식, 질병 회피 동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모두 마스크 착용에 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과 마스크 착용에 관한 외현적, 암묵적 태도의 관계를 탐색하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와 정치 성향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 결정은 정치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에(조영리 & 김수연, 2021), 정치 성향과 마스크 착용 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특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백신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범유행(COVID-19 Pandemic)과 관련하여 이처럼 중요한 함의가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관한 사

람들의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여 외현적 태도와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에 관한 태도는 마스크 착용 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여 코로나 예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외현적, 암묵적 태도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인들도 탐색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활용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이 안전 혹은 위협 관련 단어들과 연합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암묵적 태도의 지표로 삼았다. 이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자극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얼굴만을 비교하게 되면 관찰된 IAT의 효과가 마스크 착용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얼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얼굴의 일부를 제시하는 자극을 활용한 IAT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마스크 자극을 활용한 IAT 결과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로 하여금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다고 (혹은 위협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자기보고형 설문으로 보고하게 하여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태도와 관련이 있는 심리학적 요인으로 코로나 사태 인식, 질병 회피 동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 부족 등의 심리적 요인과 정치 성향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측정하여 이들 요인들과 마스크 착용에 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산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실험 모집 공고문을 통해 모집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자료수집 내용과 참여자 모집 절차에 대해 연구윤리 IRB 승인(IRB-A-2101-01)을 받은 후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 생 70명(남자 14명, 여자 56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2세($SD = 2.00$)이었다. 참가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7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말하는 작은 효과 크기($d = 0.3$)를 유의 수준(alpha) .05, 검정력(1-beta) .80으로 검증할 경우에는 7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작은 효과를 검증하기에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연구 참여 동의 전,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 대한 사전 설명(커버스토리)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본 실험이 타인의 인상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반응 속도의 개인차를 탐구하는 목적을 위해 수행되며, 반응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얼굴과 단어를 제시하고 반응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이 진행된다고 안내 받았다. 설명 후, 원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실험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약 10~12 분 정도 소요되는 IAT과제를 끝낸 뒤, 참여자들은 10분 정도 소요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뒤, 참가자들은 실험 설계 목적에 대한 사후 설명을 듣고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5,0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받았다.

측정도구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제작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암묵적 연합 검사(IAT)는 마스크 IAT와 가려진 얼굴 IAT로 총 2세트이다. 마스크 IAT에서는 사진 자극으로 마스크를 미착용 혹은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가려진 얼굴 IAT에서는 얼굴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검은색 직사각형으로 가려진 얼굴 사진을 사용하였다. 각 IAT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처럼 (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et al., 1998), 중립적인 표정을 한 남녀 각각 3명의 흑백사진 6장을 사용하였다. 단어 자극으로는 안전단어 7개(안전한, 우호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보호하는, 믿을만한)와 위협단어 7개(위협적인, 위험한, 해로운, 신뢰할 수 없는, 적대적인, 두려운, 의심스러운)를 선정하여 두 IAT 세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에게 보이는 암묵적 연합 검사 화면 예시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암묵적 연합 검사는 사진자극과 단어자극 간의 강한 연합에는 빠른 반응 속도를, 약한 연합에는 느린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마스크 미착용과 안전단어”, “마스크 착용과 위협단어”를 연합하는 속도가 “마스크 착용과 안전단어”, “마스크 미착용과 위협단어”를 연합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보다 마스크 미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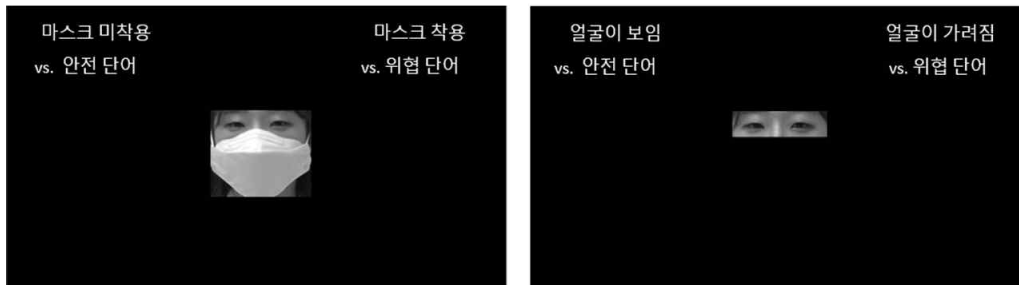


그림 1. 마스크 착용 및 가려진 얼굴 사진

용을 안전과 더 강하게 연합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만약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참가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마스크 미착용에 비해 안전과 더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IAT 실험 진행 순서

참여자들이 IAT를 시작하기 전에 박사과정 연구생과 보조연구자가 피험자에게 IAT에 대한 실험 절차를 설명하고 시범을 보임으로써 각 참가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화면 중앙에 제시되는 사진 자극 혹은 단어자극을 보고 제시된 자극이 화면 상단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범주 중에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도록 안내받았다. 또한,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IAT 각 단계에서 사진 혹은 단어자극이 제시되는 순서는 모두 무선적으로 배치되었고, 참여자들은 주어진 사진 및 단어자극이 왼쪽 범주에 해당하면 컴퓨터 자판키 'E(왼쪽)'키, 오른쪽 범주에 해당될 때는 'I(오른쪽)'키를 눌러야 했다. 오반응의 경우에는 화면 중앙에 'X' 표시가 나타나고 곧장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프로그램화되었다.

각 IAT 세트는 7단계로 각 단계마다 20회 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 IAT의 경우, 1단계는 연습단계로 참가자는 화면 중앙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혹은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게 되고 각 사진을 화면 상단에 제시되는 범주들("마스크 미착용" 혹은 "마스크 착용")에 분류한다. 연습단계인 2단계에서는 화면 중앙에 사진자극 대신 안전 및 위협관련 단어들이 나타나며 제시된 단어를 알맞은 범주("안전단어" 혹은 "위협단어")에 분류하는 연습을 한다. 3단계는 1, 2단계에서 제시되었던 사진 및 단어자극들 중 하나가 무선적으로 나타나며, 화면 상단에는 사진과 단어범주들이 연합된 범주("마스크 미착용과 안전단어" vs. "마스크 착용과 위협단어")가 나타난

다. 참여자들은 1, 2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화면 중앙에 제시되는 사진 및 단어자극들을 알맞은 연합범주에 분류한다. 4단계는 3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연습단계가 아닌 실험단계에 해당된다. 5단계는 다시 연습단계로 1단계와 같이 참여자들은 마스크를 미착용 혹은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게 되지만, 화면 상단의 범주는 반대로 나타난다("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6단계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사진과 단어자극들 중 하나가 무선적으로 나타나지만 4단계의 연합범주와는 달리 6단계의 연합범주는("마스크 착용과 안전단어" vs. "마스크 미착용과 위협단어")의 형태로 제시된다. 7 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시행단계이다. 가려진 얼굴 IAT는 마스크 IAT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 대신에 검은색 직사각형으로 가려진 얼굴 사진들이 제시된다는 점만 달랐다.

두 IAT세트에서 절반의 참여자에게는 마스크 미착용 사진과 얼굴이 보이는 사진이 왼쪽에 먼저 제시되었고 또 다른 절반의 참여자에게는 마스크 미착용 사진과 얼굴이 보이는 사진이 오른쪽에 먼저 제시되었다. 사진 제시 방향의 순서에 따라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각 IAT 세트의 단계와 제시되는 자극의 순서와 연합에 관한 요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IAT검사 후 설문지 응답

참여자들은 두 세트의 암묵적 연합 검사를 마친 후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우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문항에서는 IAT에서 사용한 안전관련 단어와 위협관련 단어를 쌍으로(e.g., 위험한-안전한, 신뢰할 수 없는-신뢰할 수 있는) 제시하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마스크 착용과 더 잘 어울리는 형용사를 리커트 척도(e.g., 1점: 위험한, 7점: 안전한)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즉, 한 문항 내에서 점수가 7점

표 1. IAT의 진행 순서와 항목

단계	시행 횟수	마스크 착용 IAT		가려진 얼굴 IAT	
		E 키(왼쪽)	I 키(오른쪽)	E 키(왼쪽)	I 키(오른쪽)
1	20	마스크 미착용	마스크 착용	얼굴 보임	얼굴 가려짐
2	20	안전단어	위협단어	안전단어	위협단어
3	20	마스크 미착용 vs. 안전단어	마스크 착용 vs. 위협단어	얼굴 보임 vs. 안전단어	얼굴 가려짐 vs. 위협단어
4	20	마스크 미착용 vs. 안전단어	마스크 착용 vs. 위협단어	얼굴 보임 vs. 안전단어	얼굴 가려짐 vs. 위협단어
5	20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얼굴 가려짐	얼굴 보임
6	20	마스크 착용 vs. 안전단어	마스크 미착용 vs. 위협단어	얼굴 가려짐 vs. 안전단어	얼굴 보임 vs. 위협단어
7	20	마스크 착용 vs. 안전단어	마스크 미착용 vs. 위협단어	얼굴 가려짐 vs. 안전단어	얼굴 보임 vs. 위협단어

에 가깝다는 것은 마스크 착용을 안전과 결부하여 인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01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Howard(2020)가 제작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4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 5: 매우 동의함)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역채점 문항은 3문항이며, 높은 점수를 가질수록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척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어 있다.”(역채점 문항), “코로나바이러스는 많은 공포를 가져온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합치도는 .670 이었다.

질병 회피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Neel 등 (2016)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6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 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 7: 매우 동의함)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6문항 중 역채점 문항은 3문항이며, 높은 점수는 질병 회피 동기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는 “나는 질병을 옮길지 모르는 장소와 사람들을 피한다.”, “아픈 사람이 내 근처에 있는 것은 나를 신경

쓰이게 하지 않는다.”(역채점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42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 부족 정도는 Buhr과 Dugas(2002)에 의해 개발되고 이슬(2016)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했으며, 높은 점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 부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예시는 “예기치 못한 일을 겪으면 나는 대단히 화가 난다.”, “나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한다.” 등이 있으며, 내적 합치도는 .880이었다.

인구 통계학적 정보인 성별과 나이에 대해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치성향은 1 (진보) ~ 7(보수)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결 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응답 간 상관과 기술 통계치

	1	2	3	4	5	6	7	8
<i>M</i>	5.09	-.59	1.80	22.00	3.86	2.80	5.09	1.95
<i>SD</i>	1.58	.51	.40	1.96	.95	1.10	1.50	0.78
1								
2	-.374**							
3	-.013	.174						
4	.056	-.179	-.293*					
5	-.071	-.195	-.038	.116				
6	-.155	-.005	.163	.147	-.028			
7	.314**	-.227	.022	-.014	-.216	.076		
8	-.178	.004	-.167	.074	.114	-.238*	-.282*	

1.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 외현적 태도 2.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 암묵적 태도 3. 성별(남: 1 여: 2) 4. 나이 5. 정치 성향 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7. 질병 회피 동기 8. 코로나바이러스 인식

** $p < .01$, * $p < .05$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람들의 외현적 태도 점수는 7점 척도에서 평균 5.09($SD = 1.5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단일표본 t 검정 분석을 통해 척도의 평균 중립점수 값인 4점과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의 평균값 5.09는 척도의 평균 중립점수 값인 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69) = 7.26, p < .001, d = .87$). 즉,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위협보다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외현적 태도를 보고하였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알기 위해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 산출된 D 라는 IAT 효과크기(effect size) 값을 사용하였으며, 기존 IAT의 D 값 산출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하였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이 효과크기는 조합과제(3, 4, 6, 7

단계)의 평균차이를 조합과제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대략적인 D 값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합과제 중 연습시행 단계인 3, 6 단계(Block) 각각의 평균 차이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D1$ 값을 산출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실제 시행 단계인 4, 7 단계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D2$ 값을 구한다. 이후 두개의 $D1, D2$ 값의 평균을 구하면 개인의 IAT 효과점수인 D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D 값은 결국 시행단계인 7단계 시행의 반응 속도에서 4단계 시행의 반응속도를 뺀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D 값이 음수의 값이면 참여자들이 4단계의 사진 및 단어 자극에 대한 조합범주보다 7단계의 사진과 단어범주의 조합을 더 강하게 연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D 값이 양수면 7단계의 조합보다 4단계의 사진 및 단어범주의 조합을 더 강하게 연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두개의 IAT세트로부터 산출한 D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기술하였다.

마스크 IAT를 통해 산출한 응답자들의 평균 D 값은 -0.59로 음수 값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

표 3. 마스크 IAT와 가려진 얼굴 IAT에서 나타난 암묵적 태도의 관계 (N=70)

구분		기술통계량			t(69)
		N	평균(M)	표준편차(SD)	
암묵적 태도	마스크 IAT	70	-.59	.51	-11.758***
(D 값)	가려진 얼굴 IAT	70	.33	.51	

*** $p < .001$

자들의 7단계에서 나타난 사진 및 단어자극 범주 조합에 대한 반응속도가 4단계 시행단계에서 나타난 범주조합에 대한 반응속도에 비해 더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마스크 미착용과 안전단어,” “마스크 착용과 위협단어”의 범주조합에 비해 “마스크 착용과 안전단어,” “마스크 미착용과 위협단어” 범주조합에 반응할 때 덜 주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0.59의 D값은 중립 IAT 점수인 0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69) = -9.70, p < .001, d = -1.30$. 따라서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안전과 결부시키는 암묵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려진 얼굴 IAT에서 응답자들의 평균 D값은 0.33의 양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4단계에서 나타나는 사진 및 단어자극의 조합범주에 대한 반응 속도가 7단계에 비해서 더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참가자들이 “얼굴이 가려짐과 안전단어,” “얼굴이 보임과 위협단어”의 조합 범주에 비해 “얼굴이 보임과 안전단어,” “얼굴이 가려짐과 위협단어”의 조합범주에 반응할 때 덜 주저했으며, 더 강한 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스크 IAT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려진 얼굴 IAT에서 산출한 D값, 0.33도 IAT의 중립 점수인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69) = 5.30, p < .001, d = .65$.

추가적으로, 마스크 IAT와 가려진 얼굴 IAT로부터 얻어진 두 D값을 종속표본 t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IAT에서 산출한 D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69) = -11.758, p < .001, d = 1.94$. 이는 참가

자들이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과 직사각형으로 가려진 얼굴에 대해 서로 다른 암묵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관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관계는 둘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2).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374로 부적 상관관계 ($p < .001$)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스크 IAT로부터 산출된 D값이 음수일 때, 마스크 착용을 안전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현적으로 마스크를 안전하게 지각한 참가자들이 암묵적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안전과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규범을 일부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스크 착용 외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다음으로 마스크 착용에 외현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2). 먼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는 질병 회피 동기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314, p < .01$. 즉,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게 지각하는 외현적 태도가 강하

표 4. 인구통계학적, 정치성향 및 심리적인 변수들이 마스크 착용 외현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SE	β		
(상수)	24.923	16.231		1.535	.130
성별	.574	2.712	.026	-.212	.833
나이	.517	.557	.116	.928	.357
정치성향	-.091	1.099	-.01	-.082	.93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 부족	-.238	.124	-.236	-1.922	.060
질병 회피 동기	.372*	.159	.286*	2.335	.023
코로나바이러스 인식	-.602	.481	-.157	-1.252	.215

* $p < .05$

게 나타났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코로나바이러스 인식, 정치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나이)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주요 관심 변수들과 외현적 태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의 외현적 태도를 종속 변인으로, 관련 심리 변인들과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질병 회피 동기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 주었다, $\beta = .286$, $p < .05$, 이는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 점수가 1점 증가하면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다고 보는 외현적 태도의 점수가 0.286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의 변수들은 상관 분석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의 외현적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 암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2), 마스크

표 5. 인구통계학적, 정치성향 및 심리적인 변수들이 마스크 착용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SE	β		
(상수)	.938	.940		.997	.322
성별	.170	.157	.135	1.080	.284
나이	-.030	.032	-.115	-.920	.361
정치성향	-.126	.064	-.236	-1.976	.05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 부족	.000	.007	-.000	.003	.998
질병 회피 동기	-.022*	.009	-.289*	-2.345	.022
코로나바이러스 인식	-.004	.028	-.019	-.155	.877

* $p < .05$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위에서 언급했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종속 변인으로, 관련 심리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질병 회피 동기는 마스크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beta = -.289, p < .05$. 이는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가 1점 증가하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의 D 값이 $-.289$ 점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가 높은 참여자일수록 마스크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암묵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참가자일수록 마스크를 암묵적으로 더 안전하게 지각하는 경향성도 확인되었다, $\beta = -.236, p = .053$.

논 의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3월 11일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은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의 보급과 함께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백신의 접종 속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점진적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규제 조치 완화 이후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에서도 백신 접

종률과 관계없이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 권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왔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마스크 착용에 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마스크로 일부가 가려진 얼굴을 사람들이 위협으로 지각하는지 아니면 안전하다고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실질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외현적으로는 마스크를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Chin et al., 2021; Lee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여 외현적 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외현적, 암묵적 태도와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가장 먼저 본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외현적 태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 이후 보고된 다른 연구들(Carbon, 2020; Carragher & Hancock, 2020)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암묵적 연합 검사(IAT)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이 안전 관련 단어와 연합되어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얼굴이 위협 관련 단어와 연합되어 있을 때 더 빠른 반응 시간을 보였다. 즉,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암묵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마스크가 아닌 검은색 직사각형으로 같은 부위를 가린 얼굴 사진을 사용한 IAT의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일부를 가린 얼굴을 위협 관련 단어와 상대적으로 더 잘 연합시키는 암묵적 태도를 보였다. 종합하면,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외현적으로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도 안전하게 지각하

였지만 마스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린 얼굴은 여전히 위협과 연관 짓는 암묵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하반부가 가려진 얼굴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암묵적 태도를 갖고 있다기 보다는 마스크를 쓴 얼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상황적 배경이 사람들의 암묵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흥미로운 결과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참가자들의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비록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평균적으로는 모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두 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마스크에 대한 외현적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들과 마스크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 때문에 속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그런 태도를 외현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암묵적 태도가 모두 긍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태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문화적 환경과 편견이 내재화 되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도 한다는 Devine (1989)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추가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는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다고 지각하는 외현적 태도 및 암묵적 태도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 중에 하나

로 스스로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회피 행동을 증가시킨다(Shook et al., 2019). 따라서 이러한 동기를 강하게 가지는 사람일수록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코로나에 대한 인식은 상관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본 연구자들이 잠재적 관련 변수로 선정한 심리 요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마스크 착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코로나 위협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 때문에 심리적 요인 같은 개인차 변수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 분석에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마스크 착용을 안전과 연합하는 암묵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코로나를 덜 위협적으로 지각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다(Calvillo et al., 2020; Kahane, 2021). 다만, 정치성향은 자기보고 설문 을 통해 측정되는 외현적 태도와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흥미로운 결과들을 도출했음에도 몇 가지 제한점들을 가진다. 첫 번째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일치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은 시기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모집한 2021년 4~6월은 정부가 COVID-19 감염자수 급증으로 인해 COVID-19 감염 예방 정책 4단계를 시행한 시기였다. 2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었다. 또한, 백신 접종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책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요소들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전과 결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변함에 따라, 특히 백신접종으로 면역력을 확보한 사람이 늘어났을 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람들이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가 도출한 결과는 한국인들의 집합주의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Hofstede (2011)의 정의에 따르면 집합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사회적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당위적 규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반해,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율성과 자유를 집단의 규범보다 우선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가자들처럼 집합주의 문화의 사람들이 특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사회적 규범을 저항 없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COVID-19와 문화적 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합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COVID-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Dryhurst, 2020). 따라서 참여자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 암묵적 태도를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얼굴의 일부를 가리고 제시했을 경우 이를 암묵적으로 위협으로 지각한 반면,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은 암묵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려진 얼굴이 자연스럽지 않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얼굴을 특정 물체로 가리게 되면 가리는 물체의 속성에 따라 얼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

서 선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처럼 상황적 요인의 영향이 적은 검은 사각형 등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이를 통제 자극으로 사용했다(e.g., Fischer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과 가려진 사진은 노출되는 얼굴의 크기 및 정보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얼굴을 가리고 제시한 사진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얼굴 자극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방역 마스크만을 활용하여 사진 자극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방역 마스크가 아닌 다른 마스크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서 20대 중반의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는 점도 결과의 일반화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모두를 측정하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외현적 태도만을 측정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장했다는 함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외현적, 암묵적 태도는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요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마스크 착용 행동에도 실질적 함의가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한은진은 현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계층 및 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도덕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나진경은 현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심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방준호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개인의 친사회성 및 협력과 관련된 신경기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설선혜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다. 사회신경 과학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의사결정, 친사회 행동, 행복의 심리신경학적 기제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주연, 임가영, 김승현, 신현재, 이주영 (2020). 서울과 경기 거주 고등학생 및 성인남녀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범유행 위험 인지 및 마스크 착용 행동. *한국지역사회생활 과학회지*, 31(3), 335-351. doi:10.7856/kjcls.2020.31.3.335

김민영, 박주원, 허수민, & 권지혜 (2020). 여성 혐오 단어에 대한 노출이 명시적,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283-301. doi:10.20406/kjcs.2020.8.26.3.283

이슬 (2016). 한국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경기

조영리, 김수연 (2021).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이 코로나 19 위험 인식, 위험 정보의 탐색 처리,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RISP 모델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65(4), 106-147. doi:10.20879/kjcs.2021.65.4.003

한숙정, 이지혜 (2021). 대학생의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위험인식과 예방행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7), 283-294. doi:10.15207/JKCS.2021.12.7.283

홍영오, 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Aarøe, L., Osmundsen, M., & Petersen, M. B. (2016). Distrust as a disease avoidance strategy: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gust sensitivity regulate generalized social trust. *Frontiers in Psychology*, 7, 1038. doi:10.3389/fpsyg.2016.01038

Ackerman, J. M., Tybur, J. M., & Blackwell, A. D.(2021). What role does pathogen-avoidance psychology play in pandemic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5(3), 177-186. https://doi.org/10.1016/j.tics.2020.11.008

Asmundson, G. J., & Taylor, S. (2020). Coronaphobia: Fear and the 2019-nCoV outbreak.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0, 102196. doi:10.1016/j.janxdis.2020.102196

Bassili, J. N. (1979). Emotion recognition: the role of facial move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upper and lower areas of the fa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1), 2049-2058. doi:10.1037/0022-3514.37.11.2049

Birrell, J., Meares, K., Wilkinson, A., & Freeston, M. (2011). Toward a definition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 review of factor analytical studies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7), 1198-1208. doi:10.1016/j.cpr.2011.07.009

Brown, P. (2020). Studying COVID-19 in light of critical approaches to risk and uncertainty: research pathways, conceptual tools, and some magic from Mary Douglas. *Health, Risk & Society*, 22(1), 1-14. doi:10.1080/13698575.2020.1745508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8), 931-945. doi:10.1016/S0005-7967(01)00092-4

- Calvillo, D. P., Ross, B. J., Garcia, R. J. B., Smelter, T. J., & Rutchick, A. M. (2020). Political Ideology Predicts Perceptions of the Threat of COVID-19 (and Susceptibility to Fake News About I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8), 1119-1128. doi:10.1177/1948550620940539
- Carbon, C.-C. (2020). Wearing face masks strongly confuses counterparts in reading emo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11, 2526. doi:10.3389/fpsyg.2020.566886
- Carleton, R. N., Sharpe, D., & Asmundson, G. J. (2007). Anxiety sensitivity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Requisites of the fundamental fea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0), 2307-2316. doi:10.1016/j.brat.2007.04.006
- Carragher, D. J., & Hancock, P. J. (2020). Surgical face masks impair human face matching performance for familiar and unfamiliar faces. *Cognitive Research: Principles and Implications*, 5(1), 1-15. doi:10.1186/s41235-020-00258-x
- Chin, C. Y., Liu, C. P., & Wang, C. L. (2021). Evolving public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s COVID-19 and face masks in Taiwan: A social media study. *PLoS ONE*, 16(5), e0251845. doi:10.1371/journal.pone.0251845
- Claypool, H. M., Mackie, D. M., and Garcia-Marques, T. (2015). Fluency and Attitude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9, 370-382. doi: 10.1111/spc3.12179.
- Dasgupta, N. (2013). Implicit attitudes and beliefs adapt to situations: A decade of research on the malleability of implicit prejudice, stereotypes, and the self-concept.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233-279. doi:10.1016/B978-0-12-407236-7.00005-X
- Davies, G., & Flin, R. (1984). The man behind the mask—disguise and face recognition. *Human Learning: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 Applications*, 3(2), 83-95.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Dryhurst, S., Schneider, C. R., Kerr, J., Freeman, A. L., Recchia, G., Van Der Bles, A. M., ... & Van Der Linden, S. (2020). Risk perceptions of COVID-19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isk Research*, 23(7-8), 994-1006. doi:10.1080/13669877.2020.1758193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Worth, TX: Harcourt.
- Epstein, S., & Rouspenian, A. (1970). Heart rate and skin conductance during experimentally induced anxiety: The effect of uncertainty about receiving a noxious stimul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1), 20-28. https://doi.org/10.1037/h0029786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doi:10.1037/0022-3514.69.6.1013
- Fischer, A. H., Gillebaart, M., Rotteveel, M., Becker, D., and Vliek, M. (2012). Veiled emotions: the effect of covered faces on emotion perception and attitud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 266 - 273. doi: 10.1177/1948550611418534
- Freeston, M. H., Rhéau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6), 791-802. doi:10.1016/0191-8869(94)90048-5
- Gawronski, B., & LeBel, E. P. (2008). Understanding patterns of attitude change: When implicit measures show change, but explicit measures do no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 44(5), 1355-1361. doi:10.1016/j.jesp.2008.04.005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1), 4-27. doi:10.1037/0033-295X.102.1.4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doi:10.1037/0022-3514.74.6.1464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doi:10.1037/0022-3514.85.2.197
- Howard, M. C. (2020). Understanding face mask use to prevent coronavirus and other illnesses: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face mask perceptions scal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5(4), 912-924. doi:10.1111/bjhp.12453
- Howard, J., Huang, A., Li, Z., Tufekci, Z., Zdimal, V., van der Westhuizen, H. M., . . . Rimoin, A. W. (2021). An evidence review of face masks against COVID-19.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8(4), 1-12. doi:10.1073/pnas.2014564118
- Hsu, M., Bhatt, M., Adolphs, R., Tranel, D., & Camerer, C. F. (2005). Neural systems responding to degrees of uncertainty in human decision-making. *Science*, 310(5754), 1680-1683. doi:10.1126/science.1115327
- Jefferson, T., Spencer, E. A., Brassey, J., & Heneghan, C. (2020). Viral cultures for COVID-19 infectious potential assessment-a systematic review.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doi:10.1093/cid/ciaa1764/6018217
- Jeong, H. S., Cho, O. H., & Yoo, Y. S. (2009). High blood pressure-related knowledge and health behavior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2), 285-295.
- Kahane, L. H. (2021). Politicizing the mask: Political,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mask wearing behavior in the usa. *Eastern Economic Journal*, 47(2), 163-183. doi:10.1057/s41302-020-00186-0
- Kret, M. E., and de Gelder, B. (2012). Islamic headdress influences how emotion is recognized from the eyes. *Frontiers in Psychology*, 3:110. doi: 10.3389/fpsyg.2012.00110
- Lee, M., Kang, B. A., & You, M. (2021).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KAP) toward COVID-19: A cross-sectional study in South Korea. *BMC Public Health*, 21(1), 1-10. doi:10.1186/s12889-021-10285-y
- Makhanova, A., & Shepherd, M. A. (2020). Behavioral immune system linked to responses to the threat of COVID-19.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7, 110221. doi:10.1016/j.paid.2020.110221
- Mallinas, S. R., Maner, J. K., & Plant, E. A. (2021). What factors underlie attitudes regarding protective mask us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1038. doi:10.1016/j.paid.2021.111038
- Manley, K. D., Chan, J. C., & Wells, G. L. (2019). Do masked-face lineups facilitate eyewitness identification of a masked individua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25(3), 396-409. doi:10.1037/xap0000195
- Mansour, J. K., Beaudry, J. L., Bertrand, M. I., Kalmet, N., Melsom, E. I., & Lindsay, R. C. (2012). Impact of disguise on identification decisions and confidence with simultaneous and sequential lineups. *Law and Human Behavior*,

- 3(6), 513-526. doi:10.1037/h0093937
- Marini, M., Ansani, A., Paglieri, F., Caruana, F., & Viola, M. (2021). The impact of facemasks on emotion recognition, trust attribution and re-identification. *Scientific Reports*, 11(1), 1-4. doi:10.1038/s41598-021-84806-5
- Maurer, D., Le Grand, R., & Mondloch, C. J. (2002). The many faces of configural process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6, 255-260. [http://dx.doi.org/10.1016/S1364-6613\(02\)01903-4](http://dx.doi.org/10.1016/S1364-6613(02)01903-4)
- Miller, S. M. (1981). Predictability and human stress: Toward a clarification of evidence and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203-256. doi:10.1016/S0065-2601(08)60373-1
- Nguyen, T. B., & Pezdek, K. (2017). Memory for disguised same-and cross-race faces: The eyes have it. *Visual Cognition*, 23(7-8), 762-769. doi:10.1080/13506285.2017.1329762
- Neel, R., Kenrick, D. T., White, A. E., & Neuberg, S. L. (2016).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damental social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6), 887-907. doi:10.1037/pspp0000068
- Neumann, R., Hülsenbeck, K., & Seibt, B. (2004).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AIDS and avoidance behavior: Automatic and reflective bases of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543-550. doi:10.1016/j.jesp.2003.10.006
- Nosek, B. A. (2007). Implicit - explicit rel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2), 65-69. doi:10.1111/j.1467-8721.2007.00477.x
- Olivera-La Rosa, A., Chuquichambi, E. G., & Ingram, G. P. (2020). Keep your (social) distance: Pathogen concerns and social perception in the time of COVID-19.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6, 110200. doi:10.1016/j.paid.2020.110200
- Perugini, M. (2005). Predictive models of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1), 29-45. doi:10.1348/014466604X23491
- Rieger, M. (2020). To wear or not to wear? Factors influencing wearing face masks in German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ocial Health and Behavior*, 3(2), 50-54. doi:10.4103/shb.Shb_23_20
- Schaller, M., & Park, J. H. (2011). The behavioral immune system (and why it matter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2), 99-103. doi:10.1177/0963721411402596
- Shook, N. J., Thomas, R., & Ford, C. G. (2019). Testing the relation between disgust and general avoidance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0, 109457. doi:10.1016/j.paid.2019.05.063
- Tanaka, J. W., & Simonyi, D. (2016). The “parts and wholes” of face recogni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Experimental Psychology*, 69(10), 1876-1889. doi:10.1080/17470218.2016.1146780
- Taylor, S., & Asmundson, G. J. G. (2021). Negative attitudes about facemask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ual importance of perceived ineffectiveness and psychological reactance. *PLoS One*, 16(2), e0246317. doi:10.1371/journal.pone.0246317
- Whalen, P. J., Rauch, S. L., Etcoff, N. L., Mcinerney, S. C., Lee, M. B., and Jenike, M. A. (1998). Masked Presentations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modulate amygdala activity without explicit knowledge. *Journal of Neuroscience*, 18(1), 411-418. doi:10.1523/JNEUROSCI
- Winkielman, P., Schwarz, N., Fazendiero, T., & Reber, R. (2003). *The hedonic marking of processing fluency: Implications for evaluative judgment*. In J.

- Musch & K. C. Klauer (Eds.), *The psychology of evaluation: Affective processes in cognition and emotion* (pp. 189-217). Mahwah, NJ: Erlbaum.
- Yamada, Y., Kawabe, T., and Ihaya, K. (2012). Can you eat it? A link between categorization difficulty and food likability. *Advances in Cognitive Psychology, 8*(3), 248-254. doi:10.5709/acp-0120-2
- Yamada, Y., Kawabe, T., & Ihaya, K. (2013). Categorization difficulty is associated with negative evaluation in the “uncanny valley” phenomenon.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55*(1), 20-32. doi:10.1111/j.1468-5884.2012.00538.x
- Zajonc, R. B. (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Pt 2), 1-27. doi:10.1037/h0025848
- Zaretsky, M., Mendelsohn, A., Mintz, M., and Hendler, T. (2010). In the eye of the beholder: internally driven uncertainty of danger recruits the amygdala and 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2*(10), 2263-2275. doi:10.1162/jocn.2009.21402

1 차원고접수 : 2021. 11. 02.

수정원고접수 : 2022. 01. 17.

최종게재결정 : 2022. 02. 03.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in the Midst of COVID-19

Eun Jin Han

Jinkyung Na

Junho Bang

Sunhae Sul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Due to the wide spread of COVID-19, wearing masks has become essential in daily lives. Despite increasing rates of vaccination in many Western countries, mask wearing is still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ways of preventing COVID-19. Thus, the investigation of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could entail numerous implications. Furthermore, although some studies have confirmed people's positive explicit attitudes toward mask wearing after COVID-19,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investigating their implicit attitudes towards it. Thus, it is academically intriguing to examine and compare the two specific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To fulfil this objective, we explored and compared explicit as well as implicit attitudes, measured by IAT (Implicit Association Test), toward mask wearing and lastly examined sever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two attitudes.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nts explicitly and implicitly perceived mask wearing as safe and that the two attitud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Unlike the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however, participants still associated faces covered by a rectangular, black object with threat. Interestingly, we found the motive of disease avoidance to be positively related to both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The results implicate that people have indeed internalized social norms of encouraging mask wearing in the face of threatening COVID-19 situations, and the levels of internalization could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motivated to avoid diseases.

Keywords : COVID-19, mask wearing, explicit attitude, implicit attitude